

KDB리포트

KDB Report

이슈브리프

트럼프 2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정책 동향
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시사점

국제금융시장

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트럼프 2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정책 동향	1
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시사점	3

국제금융시장

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	8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11
--------------------	----

트럼프 2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정책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김 덕 검 (deokarete@kdb.co.kr)

- ◆ 트럼프 재집권 성공 및 공화당의 양원 과반 확보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
- ◆ 보조금 축소, 對中 견제 강화 노선은 반도체, 2차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, 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은 우리 기업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가능

□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상·하원 석권으로 첨단산업전략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

- 美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은 빠르게 추진될 전망
 - 공화당은 상원 53석(총 100석), 하원 220석(총 435석)을 확보함으로써,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
 - 이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, 특히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, 對中 견제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

□ 반도체과학법(CHIPS법)에 따른 반도체 관련 보조금 정책의 향방은 불확실하나, 對中 견제 기조는 강화될 전망

- 트럼프는 반도체 관련 보조금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으나,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존재
 - 트럼프는 보조금 대신 고율관세 부과를 통해서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가 충분할 것이라 주장
 - CHIPS법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나, 對中 견제 및 국가안보 관련 심사요건 강화 등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상존
- 반도체 산업에 대한 對中 무역 통제는 강화될 전망
 -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, 네덜란드를 반도체 수출통제*에 동참시켰으며, 트럼프 재집권 이후 협력국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

* 日 도쿄일렉트론, 네덜란드의 ASML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

- 중국의 우회 거래 차단 및 기술토착화 방지를 위해 수출통제 범위를 저사양 반도체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존재

□ 2차전지 산업 관련 지원책은 바이든 정부와 달리 축소하는 한편,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집중할 계획

- 2차전지 주요 전방산업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축소가 전망되며, 자국 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
 - IRA 법 개정을 통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* 삭감,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중단 등을 검토 중
 - * 광물, 부품 요건을 충족한 북미 전기차 구매시 최대 \$7,500 세액공제 제공
 - 자국 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첨단제조세액공제(AMPC)*는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,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부과, 미국산 배터리 수출에 대한 美 수출입은행(US EXIM) 지원 등을 계획
 - * 배터리 부품, 핵심광물 등을 미국 내 생산·판매하는 경우 배터리 기업에 1kWh 당 셀 \$35, 모듈당 \$10의 세액공제 제공

□ 트럼프 재집권은 국내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나, 對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

-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국내 반도체, 2차전지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
 - 국내 반도체 업체는 '24.12월 美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최종 확정 받았으나*, 트럼프 정부의 개입 여지가 남아 있어 對美 투자에 불확실성이 상승
 - * 삼성전자는 47억 4,500만 달러, SK하이닉스는 4억 5,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보
 -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친환경 정책 폐지 등은 2차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*
 - * LG에너지솔루션, SK온 등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북미 시설투자 계획을 일부 연기
- 對中 견제 강화는 국내 업체 판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,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존재
 - 중국 수출 의존도*가 높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압박 심화는 사업 불확실성을 야기
 - * 최근 5년 평균 반도체 부문 對中(홍콩 포함) 수출 비중은 약 58%
 - 다만, 對中 견제에 따른 중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요소

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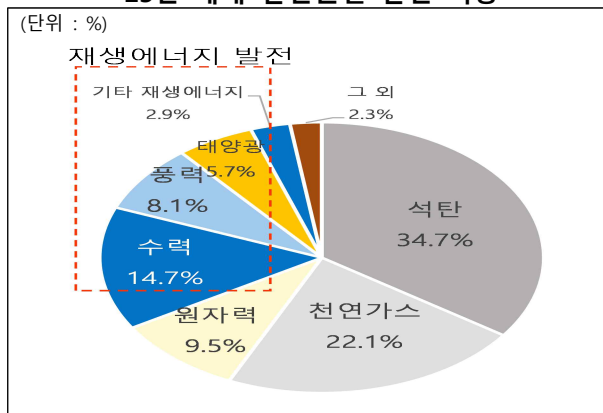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정 주 희 (jhee@kdb.co.kr)

- ◆ '23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설 용량은 565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, 향후 연간 신설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'30년 940GW에 달할 전망
- ◆ 국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며, 향후 '중국' 및 '태양광' 위주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공급망 전략 수립 등 대비가 필요

□ '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처음으로 30%를 넘어섰고, 설비 신설은 태양광과 풍력을 주축으로 전년 대비 60%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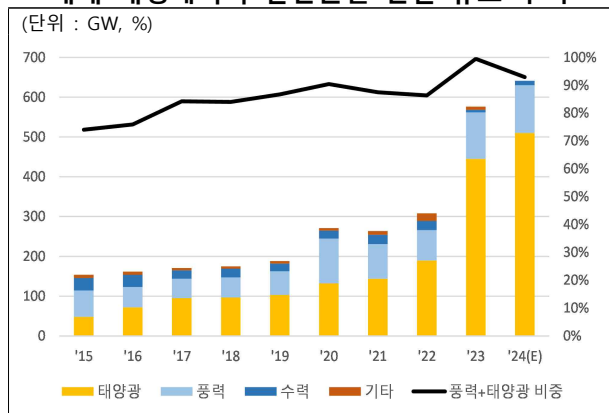
- '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5.2% 증가한 8,955TWh로 세계 총 발전량의 31.4% 비중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30%대에 진입
 - 수력발전이 14.7%로 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이며, 풍력은 8.1%, 태양광은 5.7%를 차지
- '23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설 용량은 약 565GW로 역대 최고 성장률인 60%를 기록하였고*, '24년 신설 용량은 전년 대비 약 20% 증가 예상(IEA, '24.10)
 - * 반면, '23년도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용량 증가는 전년 대비 6% 증가에 그침(BNEF, '24.8)
 - 풍력과 태양광의 합이 '23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의 90%를 상회
 - '23년 수력발전 신설 용량은 전년 대비 60% 감소한 13GW, 지열 및 바이오 에너지 등 기타 신설 용량은 8GW로 신설 용량의 1.4%를 차지

'23년 세계 발전원별 발전 비중



자료 : IRENA, BloombergNEF(BNEF)

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신설 규모 추이



자료 : IRENA, IEA

- (태양광) '23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전년 대비 약 76.7% 증가한 445GW이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가분의 약 78.8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- 기술 수준 향상, 공급량 증가 등에 따른 설비 구축비용 하락*이 태양광 발전 증가의 주요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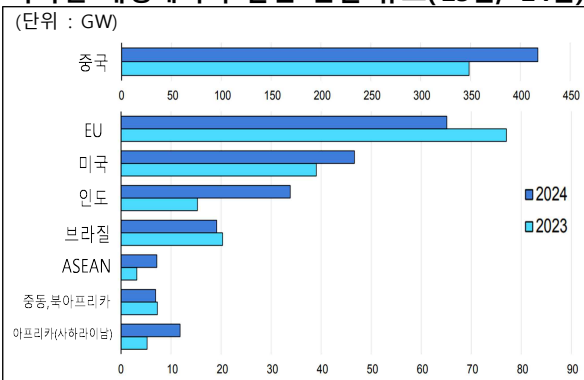
* 글로벌 평균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(LCOE)은 '10년 \$0.460/kWh에서 '23년 \$0.044/kWh으로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큰 폭으로 비용이 하락하였음(△90%). 반면, 화석연료의 평균 LCOE는 '23년 \$0.100/kWh으로 태양광보다 약 2.3배 높음 (IRENA, '24)

- (풍력) '23년 글로벌 육상풍력 신설은 107GW, 해상풍력 신설은 10.9GW로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이 최초로 1,000GW 초과
 - 해상풍력은 '21년의 급격한 성장 이후 공급망 병목 및 프로젝트 허가 일정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신설 용량 감소

□ 중국은 '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설 용량의 약 2/3를 차지하며 보급을 주도 중이며,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8.4%로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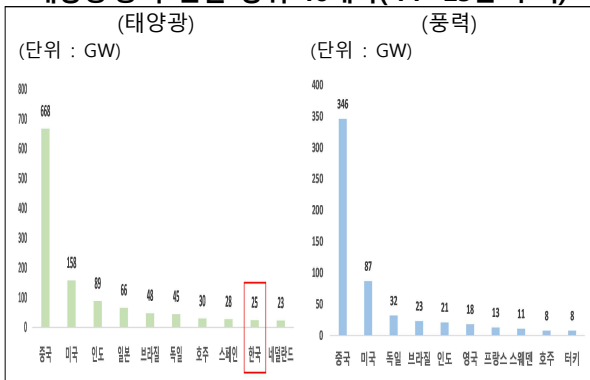
- '23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설 용량의 약 2/3를 차지하는 중국은 태양광 신설 용량이 전년 대비 2.5배 증가했으며, 풍력 신설 용량은 2배 증가
 - 그 외 '23년 전년 대비 설비 증설 주요 국가는 EU(+28%), 미국(+42%), 브라질(+29%), 인도(+7.8%) 등이며, 한국은 3.2GW(△2.9%) 신설로 이는 글로벌 신설 용량의 0.56%
- 지난 10년간('14~'23년) 신설 용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의 실적이 두드러지며 한국은 글로벌 평균 신설 용량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
 - 중국, 인도, 브라질이 재생에너지 발전 신설량 상위권으로, 개발도상국(중국 포함)에서 '23년 재생에너지 증설의 약 87%가 진행됨(BNEF, '24.8)
 -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태양광 발전 신설에서 9위를 기록

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신설 규모('23년, '24년)



자료 : IEA ('24년은 IEA 추정 데이터)

태양광·풍력 신설 상위 10개국('14~'23년 누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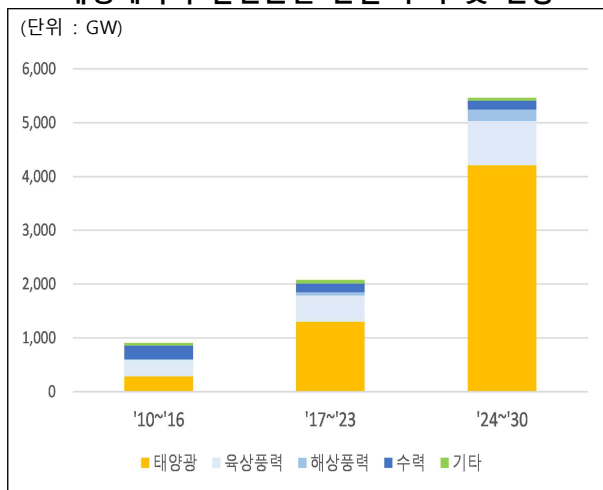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NEF

□ '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설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, 발전원별로는 '태양광', 지역별로는 '중국'이 성장의 핵심축이 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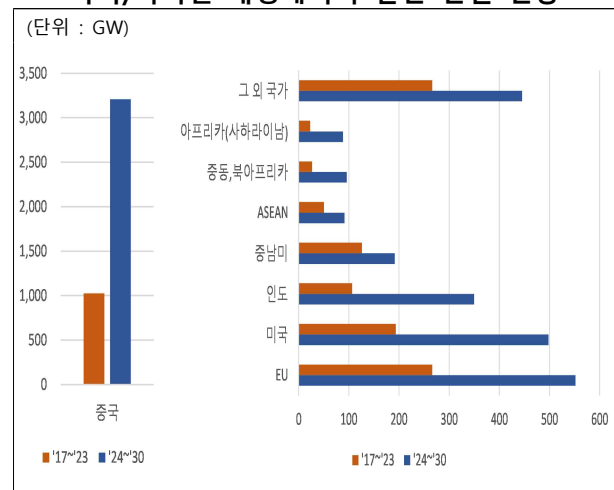
-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('24.10)에 따르면, 세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'23년 약 31%에서 '30년 46%로 상승할 전망
 - 이에 따라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신설 규모는 연평균 7.5%로 매년 증가하여 '30년에는 연간 증설 규모가 940GW에 달할 것
 - '24~'30년까지 5,520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전망('17~'23년 신규 설치량 대비 2.6배 증가 예상)
- (발전원별) 태양광 및 풍력이 '24~'30년까지 신규 설비 증가의 95%를 차지할 전망
 - 태양광은 향후 '30년까지 추가되는 총 재생에너지 증설의 80%를 차지할 것
 - '17~'23년 대비 '24~'30년 누적 증설 규모는 육상풍력의 경우 두 배에 달하는 846GW, 해상풍력의 경우 4배에 달하는 212GW가 될 전망
 - 수력은 '30년까지 개발도상국 위주로 연간 20~30GW 증설될 전망이며 그 밖의 기타 재생에너지는 연간 총 12GW 규모의 증설 예상

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신설 추이 및 전망



자료 : IEA

국가/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 신설 전망



자료 : I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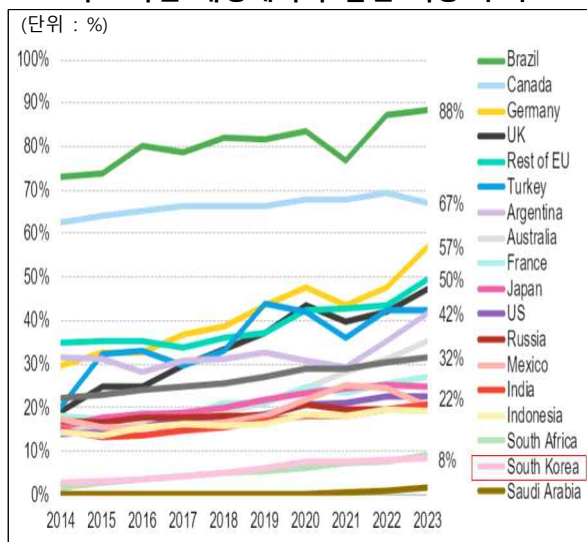
- (지역별)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가속화될 것이며, 중국은 '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증설 용량의 60%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
 -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가파른 성장(연평균 22.5%)이 예상되며 EU와 미국의 재생에너지 증설은 '24~'30년까지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 증가해 왔으나 新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등으로 시장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 상존
- '23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전년 투자금액 대비 8% 증가한 6,225억 달러에 달하였고, 태양광이 약 63%, 풍력이 약 35%를 차지
-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움직임*에 따라 각국의 재생에너지 신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1조 달러의 투자금액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(BNEF, '24.10)
- * '23.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에서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이 '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3배 증가를 선언

□ (시사점1)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더욱 가속화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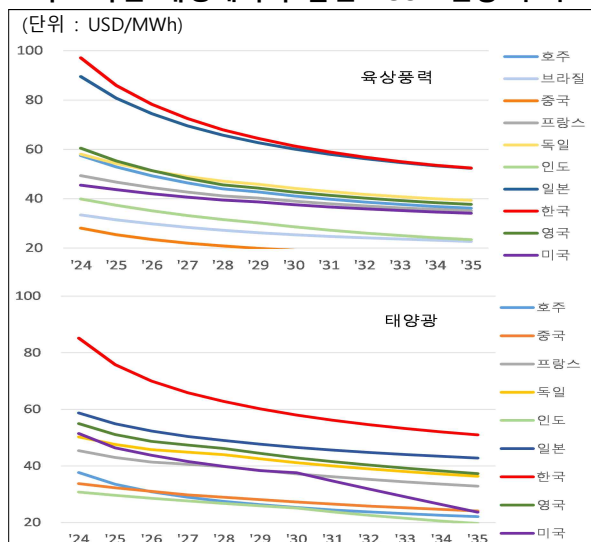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적극 확충이 필요한 상황
- 현재 G20 국가 대부분이 20~50%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유한 반면,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10%를 하회('23년 8.4%, 전력통계정보시스템)
 -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타 국가 대비 비교적 높게 지속될 전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용률 상향 등의 지원이 필요
- '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'18년 대비 40%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

주요국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



자료 : BloombergNEF

주요국별 재생에너지 발전 LCOE 전망 추이



자료 : BloombergNEF

□ (시사점 2)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른 공급망 집중 현상은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신설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- 태양광의 경우 글로벌 생산 설비의 80% 이상을 중국이 보유 중이며, 특정 가치사슬의 점유율은 최대 약 97%까지 달하여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음
- '30년 중국의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최대 90%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(IEA, '24)

'23년 세계 태양광 발전 주요 공급망별 생산능력 점유율

(단위 : %)

품목	중국	미국	유럽	일본	한국	기타
폴리실리콘	85.58	4.75	5.24	1.19	0.51	2.73
웨이퍼 및 잉곳(ingot)	96.60	0.01	0.20	0.04	0.01	3.14
셀(cell)	89.30	n.a	0.41	0.59	0.76	8.94
모듈	83.56	0.41	1.97	0.51	0.67	12.88

자료 : BloombergNEF

- 풍력 또한 태양광과 유사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 장악으로 평가
 - 풍력발전 제조사 상위 5개社*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'23년 생산 기준 약 55%에 달하며, 3위(덴마크)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
 - * '23년 풍력 발전설비 제조 순위(BNEF, '24.3) : 1위 Goldwind(중국), 2위 Envision(중국), 3위 Vestas(덴마크), 4위 Windey(중국), 5위 Mingyang(중국)
 - GWEC(세계풍력에너지협회)에 따르면 '30년경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력발전 공급망 병목을 겪을 것으로 예측
- 특정 국가가 재생에너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,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급망 전략이 필요
 - EU와 미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, 기술 등에 대한 타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을 강화하고자 보호무역주의* 조치를 취하고 있음
 - * EU의 탄소중립산업법(NZIA) 및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 등
 - 우리나라 또한 재생에너지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

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윤 영 교 (yoonyk@kdb.co.kr)
심 한 용 (hyshim@kdb.co.kr)

- ◆ (환율) 1월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1,400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지속, 2월은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, 무역흑자 등으로 하락 전망되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낙폭 제한
- ◆ (금리) 1월 미국 금리는 상승 후 하락하며 보험세를 보였고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,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며 유로존은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하락 전망
- ◆ (주가) 1월 미국과 유로존 주가는 상승하였고 일본 주가는 하락, 2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 AI 과잉투자 우려 등 조정 요인도 상존

□ 1월 주요 경제·금융 동향 : 연준과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, 유로존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, 일본은 기준금리 25bp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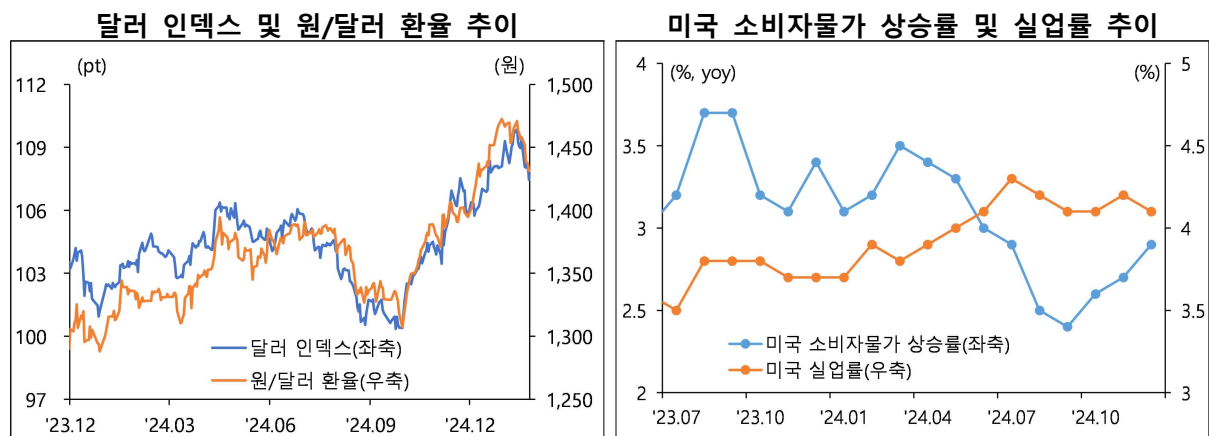
- 美 연준은 FOMC(28~29일)에서 기준금리 동결(4.50%)
 - 성명서에서 '인플레이션*이 2% 목표를 향하여 진전이 있었다'는 문구를 삭제, 향후 금리인하 재개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'24.9월 이후 첫 동결 결정
 - *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(% , yoy) : 2.5('24.8월) → 2.4(9월) → 2.6(10월) → 2.7(11월) → 2.9(12월)
 - 파월 의장은 건조한 실물경제와 고용상황 등으로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,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강조
- 한국은행은 금통위(16일)에서 기준금리를 동결(3.00%)
 -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 지연에 따라 경기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나,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와 외환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동결 결정
 - 이창용 총재는 금번 동결은 정치적 요소로 급상승한 원/달러 환율*을 고려한 결정이며, 금통위원 전원이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재개를 시사하였다고 발언
 - * 원/달러 환율(원) : 1,377('24.10.31일) → 1,397(11.29일) → 1,479(12.31일) → 1,461('25.1.15일)
-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(30일)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(예금금리 3.00% → 2.75%)
 - 물가상승률*이 높은 수준이나 임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로우며, 무역마찰 우려 등 경제성장의 하방위험을 감안하여 25bp 인하 결정
 - * 유로존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% , yoy) : 2.2('24.8월) → 1.7(9월) → 2.0(10월) → 2.2(11월) → 2.4(12월)
- BOJ는 금융정책회의(23~24일)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(단기금리 0.25% → 0.50%)
 -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기업의 임금 상승 흐름으로 물가 전망치*를 상향 하며 25bp 인상 결정, 우에다 총재는 경제전망 현실화시 금리인상 지속 시사
 - * '24년/'25년 전망(% , '24.11월 → '25.1월) : 경제성장률 0.6/1.1 → 0.5/1.1, 근원물가 상승률 2.5/1.9 → 2.7/2.4

□ '25.2월 주요 국내외 경제·금융 이벤트

- 미국, 주요 경제 지표 : 고용보고서(7일), 소비자물가 상승률(12일) 등 주요 지표 결과가 3월 FOMC*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
*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3월 동결 확률은 83%, 25bp 인하 확률은 17%('25.1.31일)
- 한국, 금통위(25일) :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도 제기되나, 1%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*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저하**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우세
*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: 1.6('24.9월) → 1.3(10월) → 1.5(11월) → 1.9(12월)
** '24년 국내 경제성장률 2.0%, '25년 전망치(한국은행) 1.9%

□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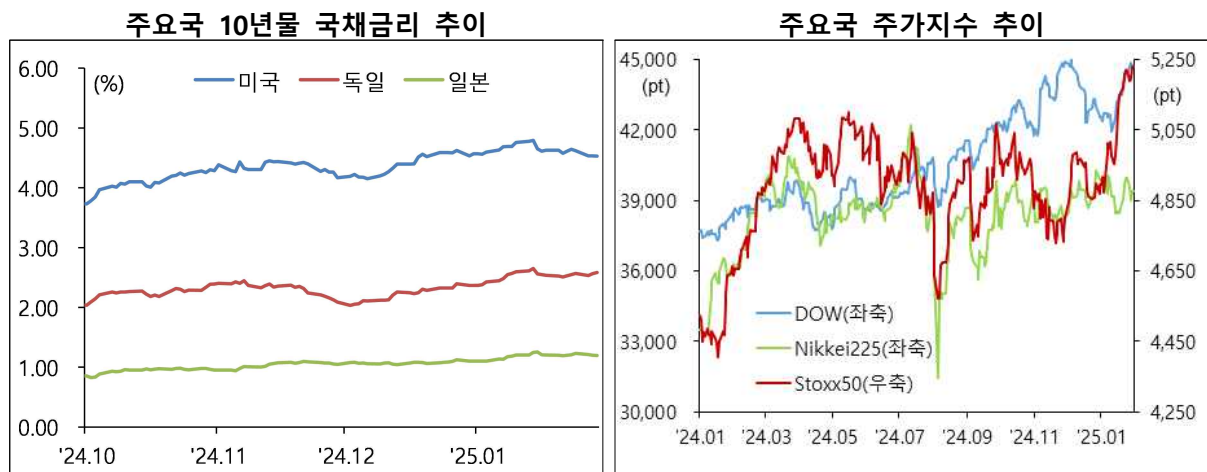
- (환율) 1월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1,400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, 2월은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등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낙폭은 제한
- 1월 원/달러 환율은 트럼프 정부 취임 및 정책발표에 따른 단기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,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,400원대를 상회
- 2월 원/달러 환율은 대통령 구속 기소(26일) 등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와 무역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하락세가 나타날 전망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* 지속시 하락 폭 제한
* 국내 무역수지(억달러) : 36.6('24.8월) → 66.6(9월) → 31.7(10월) → 55.87(11월) → 64.9(12월)
**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(억달러) : 36.3('24.8월) → △25.3(9월) → △1.2(10월) → △21.4(11월) → △38.6(12월)



	'22년말	'23년말	'24.12월말	'25.1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 환율	1,264.5	1,294.5	1,472.5	1,431.3	△2.8%
달러 인덱스	103.49	101.47	108.09	107.46	△0.6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, Bloomberg

- (금리) 1월 미국 금리는 보합세를 보였고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,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상승이 예상되며 유로존은 하락할 가능성
 - 1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며 상승한 후 하락하며 보합세, 유로존은 종합 PMI 반등('24.11월 48.3 → 12월 49.6) 등 경기 회복 기대 가운데 상승, 일본 금리는 BOJ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상승
 - 2월 미국과 일본 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영향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유로존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우려 및 금리인하 지속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하락 예상
- (주가) 1월 미국과 유로존 주가는 상승하였고 일본 주가는 하락, 2월 주요국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동결 장기화 가능성 등 조정 요인도 상존
 - 1월 미국 주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 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(Deepseek)* 충격으로 상승분 일부 반납, 유로존은 경기 회복과 ECB의 금리인하 지속을 기대하며 상승, 일본은 금리인상과 반도체주 약세 등으로 하락
 - * **고효율·저비용 AI 모델을 발표하여 엔비디아, 브로드컴 등 AI 및 반도체 관련주 급락**
 - 2월 주요국 주가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나 연준의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과 AI 과잉투자 우려, 트럼프 정부의 관세장벽 현실화 등의 조정 요인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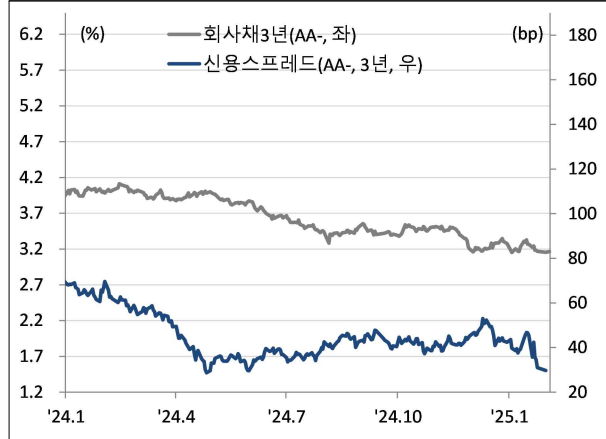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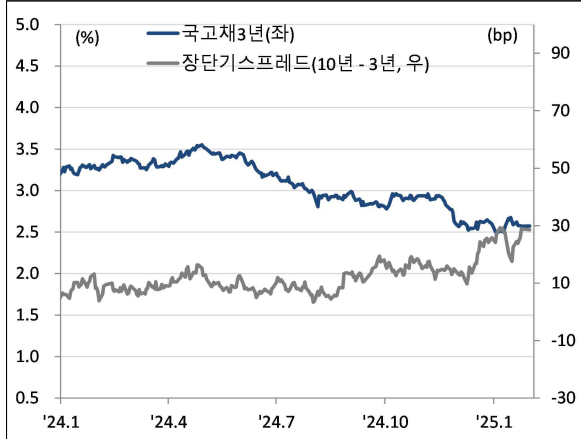


	'22년말	'23년말	'24.12월말	'25.1월말	전월대비
미국채 10y	3.8748	3.897	4.533	4.522	△0.2%
독일채 10y	2.5710	1.979	2.367	2.583	+9.1%
일본채 10y	0.4220	0.623	1.101	1.212	+10.1%
다우존스	32,875.71	37,385.97	42,573.73	44,713.52	+5.0%
유로 Stoxx 50	3,808.82	4,521.47	4,869.28	5,230.66	+7.4%
Nikkei 225	26,340.50	33,169.05	39,894.54	39,405.35	△1.2%

자료 : Bloomberg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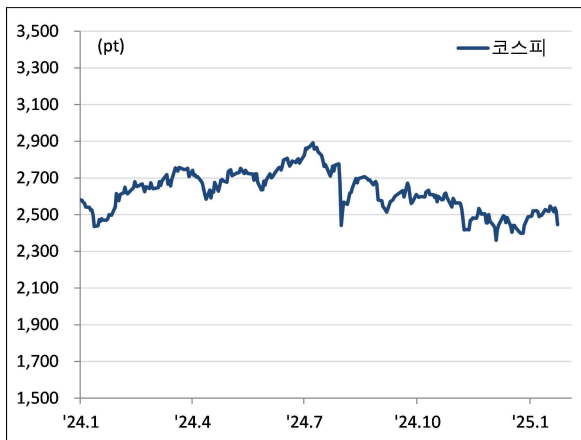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2.573% (7.3bp ↓), 신용스프레드 29.7bp (15.8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469.8원 (6.6원 ↑), 엔/달러 155.66엔 (2.3엔 ↓)



주 가 코스피 2,445.51pt (2.08% ↓), 코스닥지수 705.84pt (1.70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62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37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